

가정 예배 모범

- 2022_11_27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1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모든 삶의 주인이시며, 삶의 의미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허무하고 괴로울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생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찬288장)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전도서 1장 1~ 11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설교자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2절)?

본문의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분명 그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많은 학문을 연마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저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2절). 특별히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의 수고, 그들의 노동이 무익하다고 주장합니다. 분명 우리의 일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해 아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수고, 즉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의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선포합니다(3절).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은 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2)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8, 9절)?

전도자는 계속해서 땅, 해, 바람, 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4~11절). 인간은 태어나고 죽지만, 이 모든 자연은 변함없이 영원히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만물들이 아무런 새로움도 없이 무의미하게 같은 현상을 반복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앞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의 공허함을 지적한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는 자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이는 가치 없이 반복되는 무상한 것이라 말합니다.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여 인간과 함께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롬 8:22). 유한한 인간은 자연과 같은 영원을 소망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없는 영원은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